

 한국농어촌공사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강화옹진지사 농지은행부 김태중(032-930-2503) / 제공일: 2021. 11. 18 (총 2매)		

한강물, 강화도 농업용수공급사업 준공 김포에서 교동까지 60km 물길연결 마무리

- 한국농어촌공사 사장(사장 김인식)은 18일 배준영 국회의원, 유천호 강화군수,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, 지역농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민의 숙원사업인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하였다.
- 강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014년과 2015년 2년에 걸친 가뭄을 겪으면서 강화군의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국내 최초 수계연결 사업이다.
- 저류지 1개소, 양수장 3개소를 비롯하여 송수관로 24km 설치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약 464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준공 후 김포 신곡양수장에서 시작하여 포내천을 거쳐 강화 교동면까지 60km 구간을 통해 강화 북부 680ha 농지에 한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.
- 이번 사업 준공에 따라 강화도는 2020년 준공된 강화 남부지역 한강물 공급사업 및 2018년 준공된 삼산, 교동면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기존 용수공급 사업과 함께 강화 전 지역이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.
-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바다로 흘러가는 하천수를 활용, 강화도의 거의 모든 저수지와 용배수로, 하천을 한강물로 채워 나감으로써 강화농업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.

- 한편, 농어촌공사와 강화군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강화지역 농촌용수 확보 로드맵을 구축, 한강물을 강화로 바로 끌어오는 가현지구 농촌용수 체계개편사업을 추진 중인데, 이는 논 농업용수 외에 밭기반, 하천, 유지, 환경용수 공급 등 농촌용수 기능을 다각화하는 사업이다.
- 김인식 사장은 “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사업 준공 이후에도 배수개선, 수질개선, 방조제 개보수, 공공하수처리 사업 등을 통해 강화군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겠다” 라고 준공식 소감을 밝혔다.